

충남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박중찬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이번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경제학적으로 이러한 역사의 반복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1776년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에서 자유시장경제는 가격기능(Price Mechanism)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The Invisible Hands)"에 의해 시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개입보다는 시장 스스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한 이래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가능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지양해 왔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적 조절 기능에 의해 시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은 1929년 대공황에 직면하면서 무너지게 되고,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에서 가격에 의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유효 수요 창출이 공황을 탈출하게 할 수 있다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Sir, John Maynard Keynes)의 등장을 맞게 된다. 케인즈의 등장 이래 케인즈주의(The Keynesians)는 경제를 통치하는 대세가 되었고, 국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의 자율기능을 보완해가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발전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와 함께 세계 경제는 경기침체 아래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 불리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다. 정부의 세세한 개입을 통한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시금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 경제학적으로는 신고전파(The New Classics) - 가 등장하여 1980년 이후 학문적으로나 실용적으로 경제를 통치하는 근간이 되었다. 1988년 구소련의 붕괴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우월성을 확신하면서 시장의 자율기능에 대한 무조건적 신앙심을 갖게 되고 전 세계의 금융시장과 상품시장은 자유무역의 기치

아래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발전의 속도를 더해왔다. 그러나 지나친 자유는 방종을 허락하게 되어 금융시장에서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이기심은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은 거품을 만들어 내게 되었고 그 거품이 터지게 되면서 실물경제의 위기로까지 전파되는 과정에 이른 것이다.

이제 역사는 다시금 시계바퀴를 돌려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강한 개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시장에 대한 개입을 옹호하는 미국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함께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달러 본위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에 의해 더욱 강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케인즈주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변방이라는 점과 금융과 상품 및 서비스 교역부문에서 미국시장과 중국시장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번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실물경제의 위기에 더욱 강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상태가 기본이 충실하고 진정한 경쟁력을 갖고 건설한 지 아닌 지는 위기가 와서 그것에 대응하는 자세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금번 위기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마지막 관문 테스트가 될 것이다. 그러한 시험 속에 한국의 대표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LCD, 전자, 자동차, 제철 및 석유화학산업 등의 주요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이 위치하고 있어 한국 산업구조의 축소판이면서 동시에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최근 몇 년간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충남경제가 있다. 따라서 충남 경제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해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세계 및 한국의 경제위기 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충남 경제의 현황과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해결방법을 모색해본다.

경제위기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세계경제는 향후 1~2년간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하반기, 특히 미국의 투자회사 Lehman Brothers가 파산한 9월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전 세계의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는 이미 큰 충격을 받고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 일본은 물론이고 고성장을 구가하던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들의 성장세도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OECD 등 글로벌 연구기관이 내놓는 2009년 세계경제 전망치도 갈수록 하향조정 되고 있

다. 지난해 10월 3.0%로 기대되었던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1월에는 2.2%(IMF), 12월에는 0.9%(World Bank)로 낮아졌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한 전망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내놓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일 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및 국유화 논란은 금융위기의 끝이 어딜까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에 발표되는 세계 각국의 경제전망치는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규모 공적개입, 금리인하 등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사상초유의 정책 공조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앞서 언급한 케인즈주의적 해결책으로 금융에 대한 규제와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미국과 동유럽 금융회사들의 문제가 다시 불안해지고 있어 국내금융시장에도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되고, 그것이 세계경제의 견실한 회복세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려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한국 국민들은 외환위기 때처럼 한국이 이번 위기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지나친 낙관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금번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의 외화 유동성 위기 문제여서 외부에서 도와줄 수 있었지만 이번 위기는 전 세계의 경제 지각판이 요동을 치고 있어 각국이 서로 자기 살기에 바쁜 형편이라 남을 돌 볼 신경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세계 경제시스템을 설계하고 책임을 진 미국조차 자기 살기에 급급한 편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올바른 정책으로 국가를 잘 이끌 수 있는 지가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미의 아르헨티나처럼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 것인지 가름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한국 경제위기의 현황과 전망

2009년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물경제의 위축은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2008년 4분기 GDP 성장률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실질 GDP가 전년동기 대비 3.4%, 전기대비로는 5.6%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연간 성장률은 2.5%

에 그쳤다. 2008년 12월 발표된 '산업활동동향'은 경제지표들의 감소 속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1월중 생산, 투자 등은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소비지출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수출은 더 심각하다. 2008년 9월까지 20%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던 수출이 11월과 12월에는 대폭 감소세를 보였다. 급기야는 2009년 1월에는 세계적 경기침체와에 따른 각국의 수요 감소로 한국의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고용사정 또한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2009년 경제상황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2009년 성장률 전망이 1%대 혹은 그 이하까지 내려왔다. 일부 외국계 전망기관들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불안, 가계소득 악화, 신용경색 등으로 소비, 투자부문이 모두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수출마저 선진국 및 개도국의 동반침체 전망에 따라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안정대책 및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반등을 기대해보지만 L자형 국면에 그칠 전망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경제 예측 전망들이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경제가 7~8%대의 연착륙을 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성장의 감소는 선진국경제 위축만큼이나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경제의 2008년 성장률이 9%에 그치면서 그 동안의 두 자릿수 성장세는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는데 중국경제의 둔화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을 급격히 감소할 경우, 200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

충남 경제위기의 현황과 전망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주요 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을 이끌어 온 충남경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발표한 최근의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결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

주요 기업 및 유관기관 대상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조사는 대전·충남지역 경제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지속, 세계경제 동반침체 등의 영향으로 내수와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소비는 가계소득 감소, 고용불안 등으로 크게 위축되고 설비투자

주택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도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수요 감퇴 등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동향을 보면, 제조업은 자동차, 반도체, 화학제품 등 주력업종을 비롯한 대다수 업종에서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 활동도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고용사정은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남지역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반도체, LCD를 비롯한 대다수 업종의 부진으로 감소로 반전(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08. 3·4분기 10.8%, 4·4분기 -7.1%) 되었다. 충남지역 수출은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수요 감퇴 등으로 급속히 감소하였는데, 품목별로는 반도체, LCD,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의 부진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충남 주요 수출기업의 중국 및 미국 시장의존도가 크게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수출은 미국 및 중국의 경기하강이 진정될 때까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충남 경제위기의 극복방안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위기타개 경제정책은 단기와 중장기 정책으로 구분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최우선과제로 경기하강국면에서 가장 타격을 심하게 입는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해 재정지출 등 정책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의 직접적 타격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종사자 및 사회적 소외계층의 기본적 생활 능력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위기가 극복된 이후에 생활 및 업무 기반이 붕괴되어 버리면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과감하게 큰 폭으로 집행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는 중장기적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서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충남경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농어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켜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하였다. 그러한 위치가 금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 위기 속에서도 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는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으로 4대강 살리기 등 토목건설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일자리의 질도 낮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물론 녹색성장 산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취약한 중앙정부 정책의 취약점을 뛰어 넘어 5년 10년 후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발판이 되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중점을 지속적으로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갖게 된다. 통계상으로 보면 최근 10여 년 간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금번 위기에서 보듯이 지나친 수출 의존도로 인해 역외 의존도가 높아 대외경제 변수에 취약한 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래 충남의 산업구조에서는 중소기업, 그 중 부품소재 부문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자생력이 있으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마침 엔고로 인해서 일본의 부품소재 중소기업 가운데 한국에 투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기회로 삼아 일본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상존하고 있는 것을 지칭한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큰 기회를 잡고 성공하는 기업과 국가 탄생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충청남도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단기적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더욱 더 확고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배진한, "대전 충남지역의 일자리창출 정책방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06.
2. 백운성, "충남경제의 특성분석," 충남발전연구원, 2008.
3. 산업연구원, "21세기 충남산업의 발전전략과 과제," 2004.
4. 한국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 "최근의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 2009.02.
5. 한국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 "충남지역 경제구조의 특징과 발전방향," 2008.02.